

2011.02.21 미래정책연구실

□ 중국, 가뭄피해 대책 및 곡물 가격 전망

1. AP 통신 (2011.02.08, 02.10) 주요 내용

- 중국 지도부가 200년만의 최악의 가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을 달래기 위해 10억 달러(67억 위안)를 투입하는 가뭄 극복 대책을 발표함.
 - 피해를 입은 농가에 1무(200평)당 1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올해 정부의 쌀 구매가를 지난해 보다 최고 21.9% 상향 조정
 - 농기구 구입 보조금 12억 위안을 지급하고 농업용수 개선에 60억 위안 투입
 - ※ 최대 피해 지역은 산둥성을 비롯해 안후이, 장쑤, 허난 지역이며 약 773만 ha의 겨울밀 경작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.
 - ※ 또한, FAO에 따르면 현재 이들 지역에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이 260만명에 이르며, 280만마리의 가축들도 물 부족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음.
- 중국 당국은 작년 10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일 산둥, 허난, 산시, 안후이 등 피해 지역에 일제히 인공강설과 강우를 위한 대포를 발사함.
 - 인공강설·강우 조치는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밀 등 주요 작물의 작황이 크게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특단의 조치임.
- 하지만 중국 중앙 기상대는 오는 3월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상조치만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. 또한, 얼마 전 새벽 베이징 일원에도 0.2cm의 첫 눈(1951년 기상 관측 이후 60년 만에 가장 늦음)이 왔고 비도 내렸지만, 가뭄을

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.

-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북부의 가뭄이 봄까지 이어질 경우 밀 작황 피해가 본격화될 수 있다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눈 또는 비가 내려주느냐 여부가 중요한 변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.
- 한편, 금번 중국 사태로 최근 국제 밀 선물 가격은 지난 2008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(중국은 국제 겨울밀 생산의 약 80% 차지). 또한 여타 곡물 가격도 일제히 올라 콩과 옥수수, 면화 등의 선물 가격도 상승 추세에 있음.
 - 밀 선물 거래가격: '08년(하반기) \$244/톤→'11년 2월 \$316/톤(29% 상승)
 - 옥수수 선물 거래가격: '08년(하반기) \$189/톤→'11년 2월 \$269/톤(42% 상승)
 - 콩 선물 거래가격: '08년(하반기) \$408/톤→'11년 2월 \$524/톤(28% 상승)
- 중국 국내에서도 식량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 중국 정저우 상품거래소에서 밀 가격은 톤당 3,051위안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, 1월 중국 소비자물가 지수(CPI)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인 5.5~6.0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
2. 시사점

- 중국 겨울밀은 6월이 수확기여서 봄철의 기온과 강우량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짐. 이번 가뭄이 봄까지 계속된다면 '중국발 식량 파동'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.
- 곡물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08년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, 국제 곡물가격의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